

네팔 지진 현장서 “예수 믿어라”

개신교NGO 굿피플 소속 의료진, 영어 선교 전단 뿌려 '몰의'

네팔 언론 비판 기사 게재
SNS도 “네팔인 모욕” 성토
단체 사과했지만 '망신' 초래



네팔 언론 온라인하바르가 한국 NGO를 비판한 기사

대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개신교계 NGO가 선교활동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금 한국 개신교 특유의 공격적 선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 온라인하바르는 5월 12일 보도를 통해 한국 국제 개발 NGO인 굿피플의 선교 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굿피플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용기 목사가 총재로 있는 개신교계 단체이다. 이에 따르면 굿피플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캠프를 만들고 약을 나눠주며 기독교 선교 문구가 적혀진 영문 책자를 함께 전달해 문제가 됐다.

온라인하바르는 “굿피플이 피해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문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이들은 이번 지진을 개신교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캠프를 찾았으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개종을 하면 쌀을 준다”고 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의 말을 빌려서 “유일신인 개신교를 믿지 않고 다신교인 힌두교를 믿어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는 막말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네팔 현지인들의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도 높아지

고 있다.

실제 아이디 ‘Siris Bahadur Ghale’는 “네팔인을 모욕했다”고 분노했으며, 아이디 ‘Ram Krishna Dangol’은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이며 거짓 선지자다. 말도 안되는 선교에 화가 난다. 네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굿피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굿피플은 홈페이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굿피플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 영어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을 굿피플의사회에서 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한 개인의 불법 행위이지만 굿피플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굿피플 역시 심히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선학원에 ‘특별교구’ 등 제안

추진위, 6개항 제안… 종회의석 배정 등 내용 담겨

법인 등록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계종이 선학원에 대해 대승적 차원의 2대 요구와 6개 제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선학원을 특별교구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징계를 풀어주는 것 등이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이 선학원에 제안한 사안은 2002년 양측의 합의 사안을 기초로 2대 요구와 6개 제안으로 압축된다. 2대 요구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과 법인관리법에 명시된 ‘이사 1/4를 총무원장 복수추천’ 조항을 받아들일 것이다.

6개의 제안으로는 △선학원 이사장·이사 징계 사면 △선학원 특별교구화 △중앙종회의석 2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풀기 △정관 변경시 종단 승인 의무 삭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와 제안 합의 사항은 4월 28일 총무원장·종회의장·호계위원장 등과의 회동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추진위원회는 전망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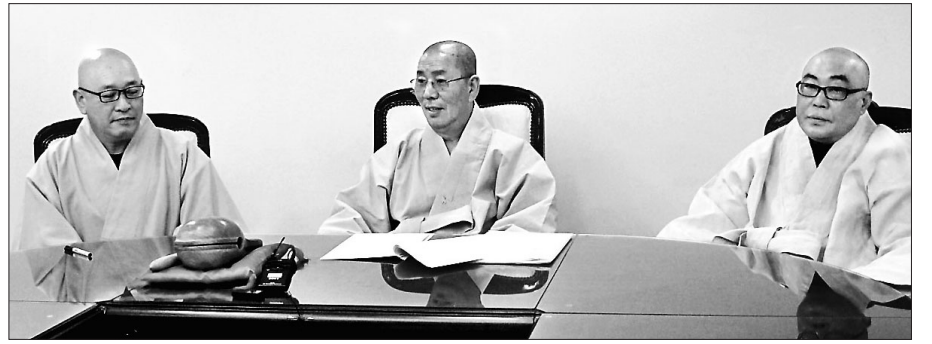
“지난 2002년 조계종·선학원의 합의가 깨진 것은 양측 모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번 제안은 조계종에게는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통 큰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선학원과 관계에서 팽배해져온 불신의 요소

- 분원장 권리제한 사항 풀고
- 이사장·이사 징계 원상회복
- 이사 1/4 총무원장 복수추천
- ‘조계종’ 명칭 사용 요구도
- 선학원, “또 다른 분열 행위”
- 법인관리법 폐지 입장 고수

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등 스님은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발표했다.

중앙선원을 선학원에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겠다.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다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은 그간 회자됐던 대승적 방안을 모아놓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남겨진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선학원 이사회가 제안 사항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어디까지나 제안 사항이지 법적 장치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사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요구와 제안 사항을 받아들여도 종단 중앙종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선학원 특별교구화와 원로회의·중앙종회 의석 배정 등의 사안은 중앙종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안 사항으로 내놓은 이사장과 이사의 징계를 풀어내는 과정 역시 제도적으로도 난제

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법을 개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하다.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종회의 의결이 문제라면 종회의원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한계가 명확한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5월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조계종 제안에 대해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조계종의 제안은 또 다른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획책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합의 위한 대중공사 이뤄질까

도산스님, 조건부 대중공사 제안
비대위 “제명 의원 포함 맞지않다”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내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중앙종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법륜사 개방과 ‘종도 대중공사’ 개최를 제안했다.

도산 스님은 5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양측의 동의하에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법륜사를 개방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 전국 총무원장 및 비상대책위 등을 포함한 전 종도가 참여하는 ‘종도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부당하게 제명시킨 지역구 종회의원 8명을 즉시 복권하고,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종헌·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즉각

도산 스님의 ‘종도 대중공사’ 제안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이하 비대위)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제명된 종회의원 복권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비대위는 5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산 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 종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명 의원 복권에 대해서는 “대중공사를 제안하면서 또 다시 종회와 비대위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작위적 사건을 주장하는 것은 종단 안정을 걱정하는 행동과 상반된다. 제명된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법륜사는 양측의 합의하에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개방한다. 김주일·신성민 기자

“네팔 구호, 재건에 초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11일 귀국 보고회

공생회·프라이스 등 활동 계속
불교단체에 성금 담지 이어져

60km 떨어져 있다.

봉사단이 현지에서 구제한 15만 달러 상당(한화 1억 6000만원)의 긴급구호키트는 쌀, 납작쌀, 소금, 콩, 라면, 식용유, 전동차, 설량, 밀가루, 비누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은 125톤 분량의 구호키트 5천개를 도운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하나씩 전달했다.

오지 지역에 긴급 구호를 진행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2차 지원은 마을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렸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장 각평 스님은 “보름 뒤 우기가 시작되면 현지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기 이후에 2차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 더 진행해야겠지만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재건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추가 여진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한국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진참사 이후 가장 먼저 구호활동을 전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개한 지구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10일 지진 진앙지 인근인 당덕 지역에 위치한 날랑 지역 주민들에게 쌀 1만kg과 콩 500kg 등의 식량을 지원했으며 다른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 2차 구호에 나섰다.

더 프라이스(이사장 법등)는 국제 보건 의료단체인 메디피스, 지역 단체인 하스티 등 과 협력해 바테단다 지역에서 의료 봉사 지원하고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 5월 11일에는 상임이사 모장스님을 비롯해 국제 팀 인원을 추가로 파견돼 당덕 지역 인근을 돌며 의료 및 천막 지원을 진행했다.

불자들의 운정이 담긴 성금도 곳곳에서 담지 중이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의협

의회(회장 우승)는 5월 1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동화사(주지 덕문) 1000만원, 수덕사(주지 정묵) 2000만원, 고운사(주지 호성) 1000만원, 화계사(주지 수암) 1000만원, 호국지장사(주지 도호) 500만원,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500만원 등 전국의 사찰들이 자비행에 동참했다.

지구촌공생회에는 기금모연을 위한 계획을 개설한 지 10일 만에 1억 원이 모였으며, 불교계구호단체를 중심으로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과 BBS, BTN 등 불교계 방송기관도 성금을 모연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범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해암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기획원장 석일두 문화원장 석도명	의전원장 석의담 총무원장 석도선 사정원장 석범해	교육원장 석남산 비구니회장 석해담	포교원장 석보광 연수원장 석대공
창원중앙총무원장 석청강 강원중앙총무원장 석성만 김천중앙총무원장 석경만 전북중앙총무원장 석덕진 안산중앙총무원장 석현공 전남중앙총무원장 석형우	영덕중앙총무원장 석지공 성주중앙총무원장 석홍재 충북중앙총무원장 석선학 광주중앙총무원장 석아도 계주중앙총무원장 석경만 풍기중앙총무원장 석일현	예천중앙총무원장 석명허 경기중앙총무원장 석재현 포항중앙총무원장 석체법 충남중앙총무원장 석문공 인천중앙총무원장 석지일 영천중앙총무원장 석만허	대구국장 혜련 충무국장 혜명 포항원장 명성 대전부장 정민 전남부장 해명 계무부장 자운
충무부장 석도홍 포교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교육부장 석정허 교무부장 석보현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사회부장 석청암 비구니부장 석용정	호법부장 석성보 문화부장 석도명
문화국장 석보성 사회국장 석원각 의료봉사국 석성진	사서국장 석성덕 총무국장 석보각 포교국장 석성우	사서특보 석성만 연수국장 석함월	기획국장 석성각 비구니국장 석지현

총무원장 석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림미레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무 심진화(차영란) 임원 대도심(이월순) 임원 법화심(김막두) 총림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해공 포교국장 석태허 총림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해 충남원장 보인 포항원장 명성 대전부장 정민 전남부장 해명 계무부장 자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총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복지국장 석용운 관리국장 석지도 규정국장 석성공 총무국장 석원경 연구국장 석경담 의식국장 석운담 조직국장 석건성 사정국장 석도운 의전국장 석운경 역경국장 석청허 교화국장 석지허 조사국장 석담월 감찰국장 석성도 홍보국장 석도운 지도국장 석청도 호계국장 석원호 계무국장 석도남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